

“주유소 최저가 비교... 서울 10개 구는 셀프주유소가 더 비싸”
연합뉴스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내용

- 보도매체 : 연합뉴스, 머니투데이(15.12.28) 등
- 제목 : 주유소 최저가 비교... 서울 10개 구는 셀프주유소가 더 비싸

□ 공사 오픈넷 관련 기사 요약

- 소비자시민모임이 9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지역 25개구 562개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, 일부 주유소에 표시된 가격과 오픈넷 공개가격이 다른 것으로 조사
- 고급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14개, 휘발유 판매 주유소 17개, 경유판매 주유소 21개의 표시된 가격이 오픈넷 가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남

□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이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“일부 주유소의 표시가격이 오픈넷의 공개가격과 다르다”와 관련
- 주유소의 가격보고는 법령의 의해 변경 후 24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,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통한 자동보고 및 인터넷과 ARS를 통한 직접보고의 방법으로 이루어짐.
- 자동 보고 업체의 경우 오픈넷 가격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오픈넷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초반 일 2회 였던 업데이트를 현재 일 6회로 확대하여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
- 직접 보고 업체의 경우 가격 변경 즉시 오피넷에 보고하지 않으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수시 안내를 통해 가격 변경 즉시 오피넷에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음.
- 또한, 24시간 가격 보고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ARS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, 가격 보고 및 업데이트 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가격을 확인하여 수정 또는 제거하는 등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음
- 아울러, 가격 보고 지연 업체 및 결제 정보 미전송 업체 등은 직접 전화로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하고 있음